



<한 愛妻家의 힌트>

寶物은 뜻밖에도 身邊 가까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고 反問할지 모른다.

皮革工場에 다니는 職工이 어느날 歸家해 보니 아내가 家計를 돕기 위해 열심히 샅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손가락에 끼고 있는 골무가 헐어 구멍이 날지경이었다. 바늘이 마침내 골무를 뚫고 아내의 손가락을 찔렀다. 아파 어쩔줄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 길로 會社에 달려가 쓰고 버린 가죽조각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골무를 만들어 아내에게 주었다. 「아프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늘이 미끄러지지 않을 아주 편리하다」고 아내는 기뻐하였다.

그는 됐다.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길로 회사에 다시 달려가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는 가죽조각을 몽땅 얻어다가 골무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에 앞서 實用新案出願을 하였다. 골무는 全國에 流行하였다. 日本 靜岡의 石川綾太郎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張本人이다. 한때는 年間 1千萬打까지 팔려나갔다.

이것은 상처입은 아내의 손가락이 愛妻家로 하여금 致富의 길을 터 준 좋은 본보기이다.

<體驗에서 살려낸 瞬間의 아이디어>

질레트는 당초 外交員이었다. 매일 깨끗이 수염을 깎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첫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것

第 8 話

發想發明에나

依存은 禁物

이 질레트의 安全面刀가 發明된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또 워터맨은 保險外交員이었다. 언젠가 顧客과 契約書를 쓰고 있는 데 그 書類 위에 잉크가 떨어져 그것이 원인이 되어 契約이 流産되어 버렸다. 그는 좋은 펜의 필요성을 痛切히 느끼고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오늘 날 우리가 쓰고 있는 펜, 즉 끝이 들로 짜개진 것을 고안해 내고 그것이 들어맞아 有名한 워터맨의 萬年筆을 만들게 되었다.

이처럼 發明은 意外로 바로 눈앞에 있다.

日常生活에 쓰이는 주변의 商品 가운데 숨겨져 있다.

특히 참을 성 많은 韓國사람들의 生活周邊에서 오래도록 참고 견디어 온 生活方式이나 生活用品 가운데 改良해야 할 아이템이 아직 무수히 많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다. 發明은 결코 멀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事實부터 지적하고……

<發想發明에만 매달려서는……>

發想發明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려서도 곤란하다.

發想發明은 製鹽가마와 같이 그 方向의 專門家가 보면 실로 어리석은 경우가 많다. 이로써 發想發明의 경우는 그 方向의 공부를 하고 知識을 쌓아서 批判하고 다시 努力을 더해서 成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머리 좋은 친구가 永久運動에 着想해서 一生을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도 發想發明의 경우가 많다.

이럴테면 한번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려 놓고 이것을 落下시켜 그 힘으로 發電시켜 모터를 돌리고 그 힘으로 다시 물을 높은 곳에 끌어 올린다. 그 물을 또 落下시켜 電氣를 이끈다……이런 것과 같이 形態는 다르지만 얼핏 생각하면 과연 훌륭하다고 생각되나 物理를 알고 있는 先生에게 물어 보면 그것은 分明히 永久運動으로서 不可能하다는 것을 說明해 준다.

때문에 發想發明도 좋지만 그것에만 매달려서

는 안된다. 깊이 研究해서 자기가 그 方面의 專門家가 될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新鮮하고 누구라도 쓸 수 있는 單純性이>

흔히 大衆은 賢明하다고 하나 일면 것처럼 게으르고 어리석고, 게다가 번덕스러운 것도 없다. 아무리 有益한 것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지 않는다.

이럴테면 디젤엔진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取扱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사용되기까지는 무척 많은 고비를 겪었다.

에디슨이 이를 다음 말로 立證하고 있다.

…「나는 蓄音機를 어린이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世界에 번져나갔다.」고……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發明이라도 거기까지 생각해야 한다.

파카萬年筆 투쟁은 나사가 아니라 밀어 넣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게으른 大衆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家電製品들도 소위 원터치 조작품이 많다. 이것도 게으르고 귀찮은 것 싫어하는 大衆의 마음에 들도록 자꾸만 改良된 결과이다.

자전거의 바람넣는 구멍도 그렇다 나사를 돌려서 빼고 끼우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그대로 잡아당겨 빼고 밀어 넣고 하는 식의 공기주입구로 개량하면 게으른 大衆에게 얼마나 어필할까. 이것은 한가지 아이디어일지모른다.

大衆은 게으른者들이어서 單純한 것을 좋아한다. 또 大衆은 번덕스럽다. 빨간 넥타이를 매고 흰 포켓치프를 껌고 멋장이 흉내를 내려는 것이 반드시 건달들의 소행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大衆의 心理가 번덕스런 것이기 때문이다.

파카萬年筆을 流線型으로 만들었더니 大衆에게 어필한 것 또한 이 때문이다. 意匠이 流行을 낳는 것도 大衆의 멋장이 心理가 共通인 것도 이제 알고난바에야 發明도 여기까지 끌고 와야 하지 않을까? <Ahn>